

# 어머니의 디지털 리터러시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충북도청 정문을 지나서 옆구리 쭈워 치한 충북연구원은 5층 정도 되어 보이는 현대식 건물이었다. 1층으로 들어서자 로비에 가득하게 고만고만한 이젤들이 정렬해 있다. 청주나 충주와 같은 대에서 온 것들도 있고, 과산·보은·단양과 같은 군지역에서 뿔뿔히 시상에 오른 것들도 있다. 그렇게 각지에서 모인 시화(詩畵)들은 이제 막 초등 문해학교에서 한글 쓰기를 마친, 연로의 학생들이 손수 그려낸 작품이었다.

바닥에 붙은 화살표를 어김없이 따라가는 회람의 시화전에서, 작품 하나가 오랫동안 발길을 붙잡는다.

“외국에 있는 딸에게 / 보고싶다 전화를 하니 / 엄마 문자로 하세요 / 뚜뚜뚜 / 야속하게 끊어 버리네”

문해학습 기간은 1년 2개월로 짧디 짧지만 66세의 세월을 견뎌온 어머니는 서운함을 이렇게 담아낸다.

“문자를 해야 글이 는다는 / 너의 깊은 마음을 / 그걸 내가 왜 모를라고”

문해는 읽기, 쓰기, 셈하기로 3R이라고 한다. 읽기인 'Reading'의 첫 글자 'R', 쓰기인 'writing'의 두 번째 글자 'r', 셈하기인 'arithmetic'의 두 번째 글자 'r'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해는 읽고, 쓰고, 셈하기 위한 능력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더 빠르고, 쉽고, 뛰어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읽고 쓰기에 자신감이 붙은 어머니는 외국에 있는 딸과의 대화를 위해 스마트폰의 메신저 앱을 열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스크린에 채팅창을 열어놓고 한자 한자 익힌 글자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존스-카발리에르는 이러한 어머니의 문해가 디지털 점들(dots)을 연결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디지털 문해라고 했다.

디지털은 물질의 특성을 '0 또는 1'이라는 비트(bit)의 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1948년 '수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을 통해 세상에서 처음으로 비트를 명명한 클로드 섀넌은 '0과 1'의 조합으로 모든 논리를 기술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실제로 지금까지 문자에서부터 음향, 영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

형태로 압축되었고, 나아가 우리의 경제 활동과 생활방식까지 빠르게 디지털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이 자연적인 물질 상태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어포던스(affordance, 행동 유도성이라고 함)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디지털 기술에 참여하려면 전통적인 학습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문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야말로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구조의 이해력이 필요한 것이다.

책은 읽는다고 하고, 인터넷은 검색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것과 검색하는 것을 모두 필요로 한다.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을 판독하는 능력도 추가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모아둔 정보들은 일관성이 없고 조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조합해 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자기에게 알맞은 정보 환경을 선택하고, 구미에 맞게 개조해야 한다.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멀티미디어를 통해 정보 수혜자뿐만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어머니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렇게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 저출생과 주거



김 대 환 (건설부동산부)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해결책'을 제시했다.

저출생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3개 핵심 분야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한 '주거' 분야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이 언급됐다.

우선, 정부는 신생·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 대상 공급을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연내 신생아특별대출 소득요건을 올해 하반기 중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3년간 한시 시행)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추가 1회)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인 세대에게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분양 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상이하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향후 3년간 완화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간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셋값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h@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6월 25일 (음 5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좋으나 지출이 과다할 듯. **48년생** 지금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60년생** 자식이 능력을 인정받으니 날아갈 듯하다. **72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 쓰자. **84년생** 실력 없이 시작하는 경쟁은 패배로 온다.
- 37년생** 계속 일만 하는 여자는 종이 배우자가 아니다. **49년생** 게으름으로 삶이 몹시 지루하게 느껴진다. **61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할 일을 찾자. **73년생** 정신적 지주는 공부에서. **85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 38년생** 남의 말을 사들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50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62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74년생** 준비해온 창의력이 번득 빛난다. **86년생**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 39년생** 내 발등을 찍는 것은 내 도끼이다. **51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63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75년생** 옳은 일에는 지금 가는 길이 최선이라 믿어야 한다. **87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 40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52년생** 종로에서 뿔뿔하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길 듯. **64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돌아다니며 본들 누가 보겠는가. **76년생** 계약이 성사되니 기쁘니. **88년생** 어진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 41년생** 곧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 **53년생** 바르게 걷다 보면 바른 마음이 일지 않겠는가. **65년생** 사람이 모이다 보면 검은 연기도 모이게 된다. **77년생**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9년생** 선택이 잘못되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 42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칭찬은 큰 성과로 돌아온다. **54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다. **66년생** 병도 약도 다 내하기 나으니 신중하게 처신. **78년생** 다툼이 생기니 양보 운전으로 시작. **9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 43년생** 밭에서 일하고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55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달래준다. **67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79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 **91년생** 인색하다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된다.
- 44년생** 마음이 혼란하니 독서로 길을 찾아보자. **56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8년생** 바람이 불어도 다 흔들리지 않는다. **80년생** 길이 멀어도 시작해서 이룬다. **92년생** 투자는 소용모로 조언을 받아보라.
- 45년생** 자전거 조심. **57년생** 남의 밥그릇에 욕심부리면 발목을 잡힌다. **69년생** 몸도 마음도 상쾌한 날. **81년생** 공평하면 신수에게 제사를 지낼 때 뱀 뱀이라도 잡아 올리는 글자가 제사(祭記)이다. **93년생** 배우자에게 지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 46년생** 좋아도 금방 달려들지 마라. **58년생** 조언도 사람을 뵈가며 해야 한다. **70년생** 투자에 대해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82년생** 가는 사람도 진정 잡아야 할 때가 있다. **94년생** 지나친 절약으로 주변의 원망을 듣게 된다.
- 47년생** 투자에 경계장동 주의. **59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겠는가. **71년생** 서쪽에서 자라는 곡식이 조粟이니 어디든 가리지 말도록. **83년생** 하심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터. **95년생** 나무가 늘리 퍼져 잘 자라는 것이 소나무(松)이다.

## 김상회의四季

### 반려동물 천도제



팔자에 술戌과 신申, 술과 인寅, 경庚과 술이 있으면 사나운 기질을 드러낼 때가 많다. 술은 개 승냥이 이리 과의 동물이며 협력해서 다른 동물을 사냥한다. 승냥이와 이리에 비실만한 간악한 자가 세력을 얻어 정권을 좌우하는 시랑당로豺狼當路의 현상은 현재나 역사에서 항상 존재한다.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모질 때 표현한다. 여하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500만을 훨씬 넘어섰다고 한다. 한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잠자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건 물론이고 마음이 아플 때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 이제 가족 그 이상인 것이다.

가족으로 지내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어떤 만남이든 회자정리의 시간이 오는 것이다. 내 가족이니 떠나보내는 건 사람을 잃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떠나보내고 난 뒤 심한 상실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펫로스증후군에 시달리며 깊은 슬픔에 빠져든다. 그래서일까. 반려동물 천도제를 올리는 반려인이 늘어나고 있다. 천도제는 열반에 든 영혼이 극락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행하는 의식이다. 천도제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떠난 반려동물 영가에게 극락왕생의 길을 인도하는 한편 보내는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것이다. 반려동물 천도제는 사람을 위한 천도제처럼 불공을 드리고 영혼을 달래는 순서로 행해진다. 펫로스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깊고 오래 이어지는데 일부에서는 우울증 같은 심한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한다고 한다. 반려동물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천도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5		
		7	4					
4			1			3	8	
	2	1	5					7
9								1
8				4	9	5		
6	4			5				3
				2	1			
1			8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9	2	8	9	2	8	1
9	8	1	2	7	8	9	6	2
8	2	2	1	9	6	8	7	9
2	9	6	7	8	1	9	2	8
1	9	8	8	2	2	7	9	6
2	7	8	9	6	9	1	2	8
8	8	2	9	1	2	6	9	7
6	1	9	8	2	7	2	8	9
9	2	7	6	9	8	8	1	2

7	1	9	6	2	2	8	9	8
2	2	8	9	8	9	7	1	6
9	6	8	8	1	7	9	2	2
1	7	9	8	9	2	6	8	2
8	8	2	2	7	6	1	9	9
6	9	2	1	9	8	8	2	7
8	8	6	9	2	9	2	7	1
2	2	1	7	8	8	9	6	9
9	9	7	2	6	1	2	8	8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6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